

문화로 이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The Happy School Projects



박 인 규 / 정회원,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
 Park, In-Kyoo /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archpark@pcu.ac.kr

1. 서론

한국전쟁 이후 1차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62년 처음으로 학교시설의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주변 환경, 대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학교들이 건설되었다¹⁾.

다른 건축시설과는 다르게 특히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접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등’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하나의 속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은 1990년 학교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소 폐쇄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열린 교육, 열린 공간을 실현하는 당시 국외의 오픈스쿨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시작된 현대화시범학교사업으로 인해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표준설계도의 사용의무화는 폐지되게 되었고 교실규격의 제한적 모듈에서 학생 1인당 최

소기준면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설계는 관할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획일화의 표준설계도가 없어지고 열린 교육을 지향하여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획일성을 조장하는 물리적인 모듈과 규격의 문제가 아닌 경제성의 논리로 또 다른 획일적인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BTL, 가격입찰제 등의 논리이다.

표준설계도가 도시, 농어촌, 산간 지역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어졌다면 지금의 학교시설의 건축과정 및 설계도 명백한 표준화는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과 제작과정 등의 보이지 않는 제한으로 인해 또 다른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 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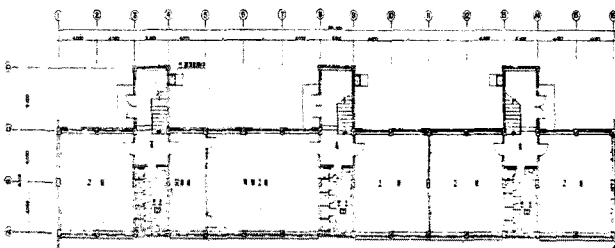


그림 1. 중학교 일반교사의 표준설계도(서울시, 1975년)



그림 2. 전주 양지중학교의 한지방 쉼터(2008년)

1) “열린공간 이제는 학교 건축이 변하고 있다” 건설저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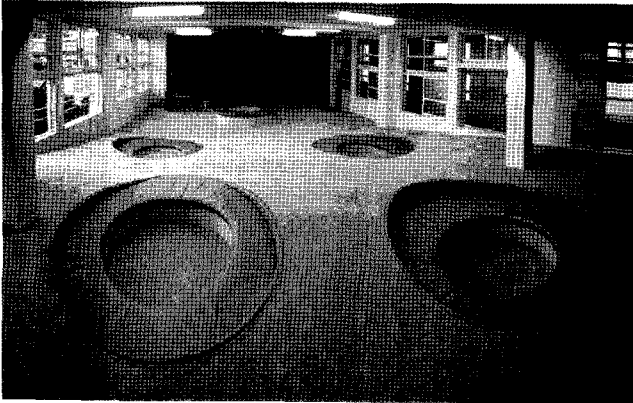


그림 3. 순천 성남초의 빈 교실을 활용한 문화카페(2010년)

2008년부터 추진해온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획일적이고 삭막한 학교 공간을 문화적 디자인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통해 친근하고 포근한 학교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얼핏 학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잘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실 학생들의 생활행동패턴을 보면 기본적인 학습행위 이외에 휴식, 다양한 체험과 놀이, 만남, 대화 및 교류 등 성인의 행동과 별 다른 없는 행위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행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습위주의 공간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교 공간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지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교공간은 학습공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시기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획일화되고 일방적 소통의 교육의 장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한정된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환경개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보수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업을 하는 일반교실이나 특수교실 등에 우선 배정이 되고 나면 기타 공간인 화장실이나 복도, 휴게 공간 등은 현황유지라는 관리정도의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만들어진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자금을 들여 공간을 개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고장 난 부위를 고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롭게 공간을 개조하는데 교과부나 교육

표 1. 사업시행실적

시행 연도	지역/학교명	건립 년도	학생수	학급수	대상 공간	문화 공간	예산 (백만원)
	전주/양지중	1994	924	25	빈 교실	갤러리, 컴퓨터 등	420
	서울/대왕중	1994	974	27	화장실	화장실 개선	
	경기/장명초	1944	52	6	화장실	화장실 개선	
	경남/무안중	1921	233	10	화장실	화장실 개선	
	경북/남산초	1985	1041	35	빈 교실	문화공간	
	경기/호곡중	2002	1176	32	휴게 공간	휴게카페	525
	경기/이천중	1945	1360	35	옥상	옥상정원	
	경기/신성중	1969	1158	30	화장실	화장실 개선	
	전북/중앙초	1946	267	13	교실	문화공간	
	서울/용곡중	1982	-	44	화장실	화장실 개선	
	경남/새별중	1981	207	6	화장실	화장실 개선	
	대구/명덕초	1940	235	12	화장실	화장실 개선	
	경북/다수초	1947	628	22	화장실	화장실 개선	
	부산/구화학교	1970	63	9	화장실	화장실 개선	
	충북/동중	1983	1065	31	교실	교실개선	
	서울/경북여자고	1993	1116	27	도서실	도서실 개선	500
	서울/대청중*	1987	1196	33	다목적실	북카페	
	광주/수피아여중**	1911	853	23	외부공간	외부공간 개선	
	대구/영화학교	1947	67	13	교실	문화카페	
	경기/삼일초	1991	1470	47	빈 교실	다목적 소강당	
	경기/충훈고	2002	1453	38	옥상	옥상정원	
	강원/동광농공업고	1954	374	19	창고	다목적 강당	
	경북/구룡포고**	1951	162	8	화장실	화장실 개선	
	전북/성북초	1950	52	7	강당	다목적 강당	
	전남/성남초	1945	579	21	교실	문화카페	
제주/표선초	1909	288	13	빈 교실	전시 및 컴퓨터		

* 건설청비용만 지원
** 예산관계로 임시 보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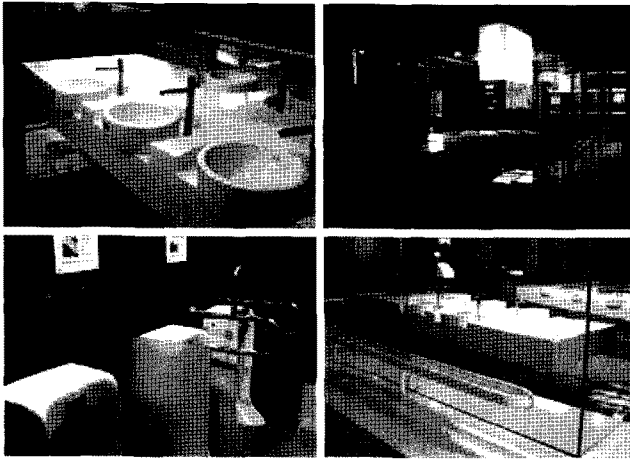


그림 4. 안양 신성중학교의 화장실 개선(2009년)

청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8년에 43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전주 양지중학교를 선도시범사업으로 총 5개교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되며 시작이 되었다. 2009년에는 93개 학교가 공모를 하여 이 가운데 10개교가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263개교가 신청하였고 최종 11개교가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도 학습 공간보다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지원공간인 화장실, 복도, 빈 교실, 옥상, 휴게 공간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 2년제인 2009년까지는 초기 시범사업인 양지중을 제외하고는 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사업결과에 대한 학교 및 사용자의 호응도, 그리고 사업주체측의 의지가 맞물려 2010년도부터는 공모신청학교도 3배가 늘고 사업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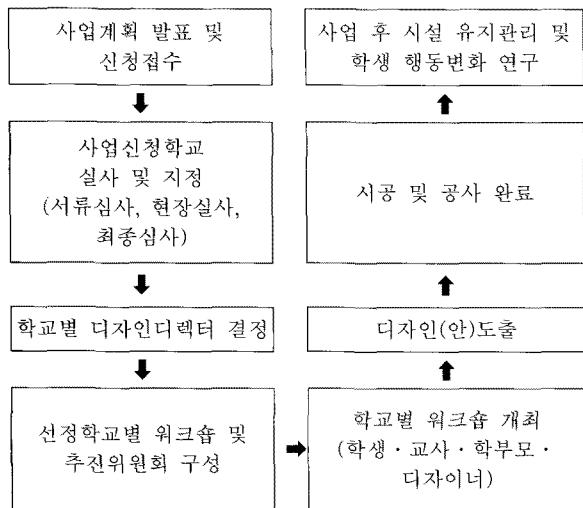


그림 5. 사업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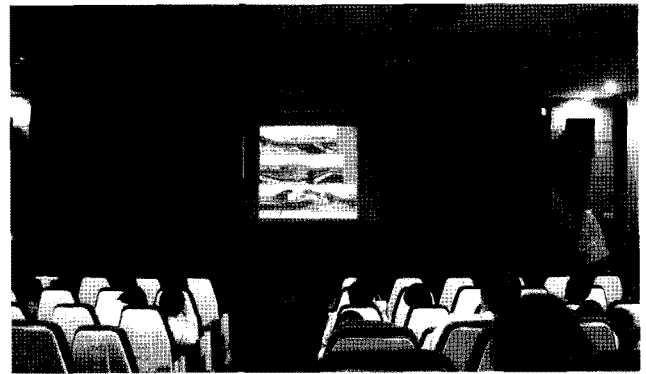


그림 6. 안양 충훈고의 워크숍 장면(2010년)

문화적인 공간 구성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 매월 초에 공모를 받아 3-4월경 사업을 시작하여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선정방식은 2010년의 경우, 1차 신청서류로 심사하여 30여개의 학교를 선정한 후, 담당전문가와 실사단을 구성, 1차 선발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공간을 보고 학교관계자들과 공간변형의 이유와 어떠한 공간으로 바뀌기를 원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최종 사업학교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시설개선의 사업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학교자체의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디자인 컨설팅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공공문화 디자인에 사용자를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에 있다. 해외의 경우, 설계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이나 실사용자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의 개념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역 및 시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즉, 학교주체인 교사와 학생들, 지역민인 학부모와 후원 단체인 기업체, 그리고 전문디자이너가 참여한 공동작업을 통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재구축된 공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공간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공간에 대한 주체적의 고양과 함께 학습효과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3. 탈 Institution

2008년 제1회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전주 양지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집단과 지역

표 2. 양지중학교 학생들의 참여 후기

- 우리의 노력이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을
- 인간은 공간을 공간은 인간을
- 웃음소리 메아리치는 행복 공간
-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들기
- 학생의 참여로 변화하는 학교
- 구닥다리 학교는 이제 안녕!
- 꿈과 희망이 가득찬 학교 만들기
- 상상 속의 학교
- 정서와 문화가 가득찬 운동장
- 다양한 운동을 하는 운동장 만들기
-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 공간
-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신나고 즐거운 학교를 기다리며
- 현대적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 삭막하고 어두운 느낌의 학교 개선하기
- 우리 학교 만들기

사회, 학교교사 등의 운영자와 학부모, 실사용자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문화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석이 된 사업이다.

교육의 영어 education은 그 어원을 라틴어 educare에 두고 있다. educare는 다시 e와 ducare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e는 out의 의미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ducare는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을 찾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양지중학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그들의 잠재해 있던 능력을 발굴하여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며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빈 교실, 지나치는 복도, 어두운 화장실, 광활한 운동장 등의 공간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회오갤러리, 한지방 쉼터, 보드게임 체험관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활동도 활발히 한 결과, 제4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두레·나눔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²⁾.

이제 학교시설은 그 사용자인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이 어떻게 장소를 주체적으로 이용하는가, 즉 기능과 시스템을 초월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설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공간의 문화공간化는 학교공간을 학생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afford 할 수 있는 경험체로서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이용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장소와 공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학습효과

를 높이려는 하나의 교육문화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 본 특집 원고를 위해 협조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송윤석 과장님과 조성제 사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432>, 전북중앙신문